

슈퍼 스타 예슈아

에디 산토로 Eddie Santoro

"슈퍼 스타 예슈아"는 이번 주 **월요일** (8월 16일) 조간 신문을 읽었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 펼쳐진 매거진 섹션의 주요 기사 표제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 곳 이스라엘 유대교의 다양한 경향들을 연재 보도하는 중에 다루진 것이었습니다.

예슈아의 이름과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는 이스라엘 인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광판들이 있었고, 예슈아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배너들이 주요 고속도로에 걸려 있었으며 저희들에 대한 TV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기사는, 이스라엘 사회의 합법적 일원으로서 인정 받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저희의 싸움에 대단한 진일보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 히브리어 신문 편집국에서 유대교의 다양한 흐름들을 연재하는 데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포함시키고, 부정적인 약어인 "예슈("그의 이름이 지워져버리기를 바라노라"라는 뜻)"가 아니라 히브리 이름 "예슈아"를 쓰기로 했다는 사실만 해도 그 자체로 굉장한 약진이었습니다.

이 기사 자체는 예슈아 신앙에 대한 신학적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고, 우리(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가 누구인지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다뤘습니다. 아세르가 현지 메시아닉 공동체 내의 몇몇 이들과 더불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모임에 대한 묘사와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저희가 예슈아를 믿긴 하지만 분명히 유대 정체성을 유지함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저는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동네 가게에 갔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저는 계산서에 "시온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해 달라고 점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게 "시온의 영광"이 무엇지 물어 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아, 저희가 믿는 예슈아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수리가 끝났는지를 물으려 전화했을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에디, 오늘 그 쪽의 사진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는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저희 며느리 덕에, 저희는 이스라엘 현지의 대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그들 모두와 복음을 나눴고, 메시아닉 방식으로 유월절 만찬 seder 및 다른 유대 절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로쉬 하샤나는 저희 집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수년 간 저희와 잘 알고 지냈으며, 저희를 매우 사랑하고 저희의 신앙을 잘 압니다. 어제 안사돈께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그 기사를 읽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저희가 싸우고 이겨온 싸움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직 전쟁의 끝은 멀기만 합니다. 그 끝이 승리인 줄은 저희가 알지만, 매일의 투쟁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적 습격의 피해를 입거나, 불법적으로 실직 당하고 사업장에서 능욕 당하며, 집을 구할 수 없고 여권도 빼앗기며, 시민권을 허가 받지 못한 이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가 지금까지와 미래의 독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정체에 대한 진실(어제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이 저희의 유대 정체성을 불법화하려는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의 강력하고 철저한 공격 계획에 맞서는 강대한 무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JJJ, the Jerusalem Institute for Justice 의 칼렙 마이어스 Calev Myers 가 이스라엘 전국의 언론 가운데 저희를 긍정적으로 그려내며 저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전방에서 싸우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나타난 이번 기사의 영역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ynetnews.com/Ext/Comp/ArticleLayout/CdaArticlePrintPreview/1,2506,L-3939336,00.html>

주: 신문 기사는 히브리어로 발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역에는 많은 오역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원문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 하야트 Al Hayat 방송

이번 주(8월 19일 목요일)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언론을 통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세르가 알 하야트 방송의 저희 친구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방송국은 수억의 아랍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수년 동안 저희 마음 가운데 자라온 꿈의 성취의 시작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고 아랍어 자막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이슬람 측에서 아가서 5:16을 무함마드에 관한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논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세르는 거기서 나아가 예슈아의 사랑이 증오의 세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우리의 아랍 “친척들”에게 화해와 구원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칼럼을 통해 이 방송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메시지가 수많은 아랍 무슬림들의 심령을 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 소식

이 곳 이스라엘을 적잖이 흔들어 놓은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란 부샤르 Bushar의 발전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직접 대화 재개입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온갖 외교적 대화와 이란의 핵 에너지 획득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부샤르에 최초로 핵 발전소를 열었습니다. 국제 정치인들은 이 발전소가 그저 민간 에너지를 위한 용도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를 경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들이 핵 무기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원자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 버리겠다”고 선포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거슬립니다.

부샤르에 발전소를 가동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슬람 지하드의 확산을 중단시킬 능력이 국제 외교관들에게 없음을 확증시켜줬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낮은 반응은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겠느냐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 협상의 재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소망하지만, “인기를 위해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photo-ops” 정치인들이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